

1



개도국의 도시화와 지속가능성장 : 나이로비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재훈 이사/선임연구위원 jhlee@kds.re.kr
(사)한국개발전략연구소

나이로비는 오늘의 개발도상국 도시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모순과 갈등 그리고 내일의 희망이 공존하고 있다. 동아프리카의 허브로 거듭나기 위하여 도시 경쟁력과 더불어 지속가능성장의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나이로비의 개발에 대한 미래 비전은 고층 빌딩과 환형 도시 고속도로, 전력망, 통신 시스템, 상하수도 시스템 등 '하드 인프라 구조(hard infrastructure)'에 있는 것만은 아닐 것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주야 칼리 문제로 대변되는 케냐 경제·사회의 구조적인 모순과 갈등을 개발 동력으로 승화시켜야 할 것이다.

1. 개발도상국의 도시화, 거스를 수 없는 흐름

세계적으로 도시화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현상으로 보인다. 2050년 경에는 세계 인구 세 명 중 한 명은 도시에 거주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개발도상국의 도시화도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¹. 그러나 도시의 성장만큼이나 도시가 해결하여야 할 문제 또한 다양한 형태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급속한 도시의 비대화는 주거, 교통, 통신, 상하수도, 교육, 치안 등 사회기반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 수요의 확대로 이어진다. 하지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수요와 공급 사이의 매우 커다란 간극이 존재한다. 이는 개발도상국에서 도시로의 인구 유입이 계획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기보다 산업화·현대화가 진행됨에 따라 도시가 제공하는 일자리와 더불어 비교적 높은 소득, 그리고 교육의 기회를 좇아 도시로 이동하는 비계획적인 인구의 도시 유입 현상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지진, 홍수 등 예상치 못한 재난의 결과로 인구의 도시 유입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개발도상국의 주산업은 농업 등 1차 산업으로 지방 인구의 대부분이 이 산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1차 산업은 공업 등 타 산업에 비하여 교역조건이 불리하고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 변화에 민감하다. 이로 인하여 산업이 위기를 맞았을 때는 지방 거주 인구가 일과 소득원을 찾아 도시로 몰리기도 한다.

어떤 경우건 비계획적인 인구의 도시 유입은 결국 무허가 도시 빈민가(slum)의 확장이란 사회적·환경적 재앙으로 이어지며, 도시 실업률의 증가와 더불어 소득 불균형이 깊어지는 현상으로 이어진다. 이는 경제사회적 불안정의 주요 원인이 되며, 종내는 나라 전체의 경제·사회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인구가 도시로 몰리는 까닭은 대부분의 자원이 도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며, 이는 또한 도시화와 산업 및 경제 구조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균형 발전(equitable growth)과 포괄적 성장(inclusive growth)을 포함한 도시의 지속가능성장(sustainable growth)은 개발도상국 도시가 나아가야 할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에서 도시의 지속가능성장은 그 야심찬 목표만큼이나 커다란 도전에 직면하여 있다. 도시의 슬럼화와 그에 따른 비공식 부문의 확장은 도시의 지속가능성장은 물론 제조업 등 산업화를 통한 경제구조 전환 등 국가적 당면 과제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

2. 나이로비의 지속가능성장, 비전과 현실 사이에서의 딜레마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는 독립 당시인 1963년 경 약 35만의 인구를 가진 소도시에 불과하였으나 지금은 약 330만의 인구를 포용하는 대도시로 변모하였다(표1). 독립 전 인도양의 몸바사(Mombasa)항과 빅토리아호수 연안의 키수무(Kisumu)를 연결하는 케냐-우간다 철도의 창고지에 불과하던 늪지대가 1907년에는 영국령 동아프리카의 수도로, 지금은 케냐는 물론 동아프리카의 상업, 교통, 경제 등 지역 경제의 중심 도시로 성장하였다. 오늘날의 나이로비는 케냐 전체 고용의 약 25%, 도시노동인구의 약 43%를 고용하고 있으며, 케냐 GDP의 약 45%를 차지하는 등 케냐의 정치·경제·사회의 중심축이다².

표1 나이로비의 인구, 인구증가를 및 인구밀도

연도	케냐 총인구*	인구	인구증가율(%)	인구밀도(ha당)
1948	-	118,976	188.1	14.3
1963	8,908,425	342,764	48.6	5.0
1969	10,867,717	509,286	48.6	7.4
1979	15,661,480	827,755	62.5	12.0
1989	22,666,720	1,324,570	60.0	19.2
1999	30,478,597	2,143,254	60.8	31.1
2010	40,909,194	3,750,000	75.0	54.4

자료 : Adebayo,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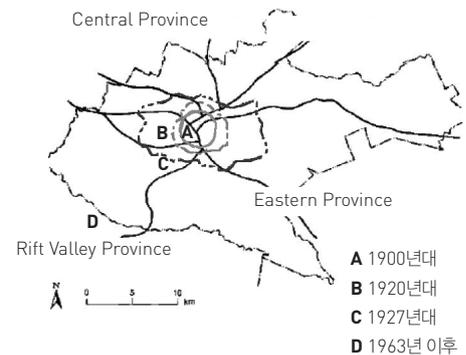
*케냐 총인구는 World Bank, 2014

인구의 증가만큼 도시의 면적도 확장되어 1928년 2,537ha(25.37km²)였던 나이로비는 1963년 이후 68,945ha(689.5km²)로 늘어나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그림1)³. 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한정된 토지에 대한 투기 바람을 불러와 땅 값과 부동산 가격을 올려놓았고, 이는 무허가 빈민촌이 나이로비 전 지역에 걸쳐 형성되는 결과로 나타났다(그림2). 물론 나이로비의 빈민촌은 영국 식민지 시대 때부터 존재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일

부에서는 유럽인들의 정주지 건설에 따라 집과 토지를 잃은 케냐 원주민, 식민지 정부의 케냐 원주민에 대한 인종차별적 주거 정책⁴, 움막집 등 소위 '기준 이하' 주택의 철거 등에 의해 발생한 철거민 등이 유랑민이 되어 나이로비로 흘러들게 되었고, 한편으로는 독립 이후 케냐 원주민에 대한 이동의 제한이 없어지며 일거리를 찾아 무작정 나이로비로 흘러든 이들 때문에 나이로비의 빈민촌이 생겨났다고 그 발생 원인을 따져 보기도 한다⁵.

인구 유입과 자연 증가로 무허가 빈민촌의 인구도 빠르게 증가하여, 1993년 73만 명 선에서 2009년에는 약 2백만 명에 달한다고 추산하고 있다(표2). 최근에는 나이로비 인구의 60% 이상이 무허가 빈민촌에서 살고 있으며, 1992년 약 26%였던 나이로비의 국가빈곤선 이하의 빈곤인구 비율은 1999년 이미 50%로 급격히 증가하였다⁶.

그림1 나이로비 시계(市界)의 변화, 1900-1963



자료 : Adebayo, 2012. p.5

1 United Nations, 2014. p. 1195-1211

2 United Nations, 2006

3 Adebayo, Ambrose A., 2012

4 영국 식민지 행정청은 원주민 거주 지역에 주거를 위한 적절한 예산을 투입하지 않았다. 식민지 시대 때의 나이로비는 인종 기준으로 거주 지역을 달리했다. 크게 보아, 유럽계 정주자들은 거주 환경이 좋은 나이로비의 북쪽과 서쪽 구역에 거주하였고, 북쪽과 동쪽은 인도인들의 구역, 그리고 동쪽과 남동부 지역은 케냐 원주민들의 구역으로 나뉘었다.

5 Mitullah, Winnie, 2003. p.10

6 United Nations, 2006. p.4

그림2 나이로비의 무허가 빈민촌 분포 현황



표2 나이로비 무허가 거주 지역 : 총면적, 거주 인구 및 인구밀도(추정치)

나이로비 내 무허가 거주지역 총면적 (ha, 1999 기준)	1993	1999	2009
무허가지역 거주인구(명)	734,031	1,116,971	2,000,000
인구밀도(명/ha)	723	1,100	1,926*

주 : *2009 인구 밀도는 Amnesty International 2009의 자료를 기반으로 추산
 자료 : Winnie Mitullah, 2003. p.9
 부분인용 : Amnesty International, 2009. p.3.

이 같은 빈곤율이 가까운 장래에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크게 보아 실업률의 증가, 특히 청년 실업률이 나아지고 있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케냐는 젊은 나라로 생산가능인구가 55%를 상회한다. 연령별 인구 구조를 보면 0~14세까지의 인구가 42.1%이며 15~24세가 18.7%, 그리고 25~54세의 인구층이 약 32.8%를 차지하고 있다. 노동

가능인구의 우세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찾기는 매우 어렵다. 2013년 기준으로 나라 전체의 실업률은 약 9%를 상회하고 있으며 2012년 기준으로 보면 20~24세 남성의 실업률이 8.9%, 여성은 7.3%이다. 25~29세 층으로 가면 남성은 5.7%, 여성은 4.6%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도시의 청년 실업률이다. 20~24세 도시 청년 실업률은 13.2%이며 25~29세 청년층의 실업률도 7.5%나 된다⁷⁾. 특히 나이로비의 청년 실업률은 타 지역과 비교하여 매우 높다. 주별로 비교하여 보면 세 번째로 높아 비율로는 35%를 상회하며 숫자로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약 30만 명이 넘는다(그림3)⁸⁾.

7 Index Mundi,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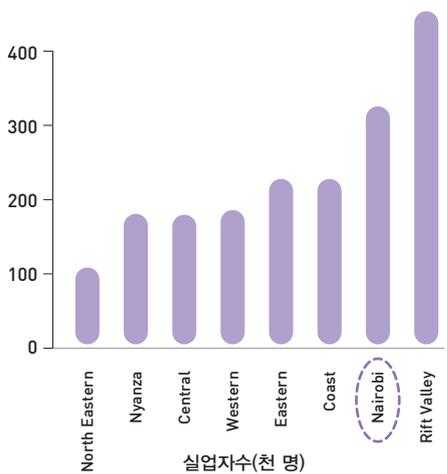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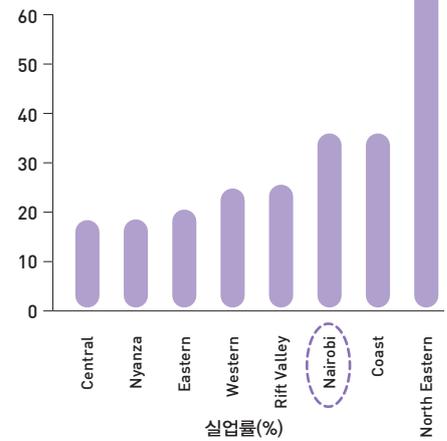
8 United Nations, 2013

나이로비에 산재한 무허가 빈민촌 내의 청년 실업률은 더욱 심각하여 빈민촌 내 청년 인구의 약 6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⁹. 범죄 유형 역시 밀주 제조, 마약, 살인, 방화, 성폭력, 강도, 소매치기, 절도 등 강력범죄가 대부분이다. 무허가 빈민촌 내의 높은 범죄율은 나이로비를 남아공의 피터마리츠버그, 요한네스버그, 더반, 포트 엘리자베스, 케이프 타운, 모리셔스의 포트 루이스, 탄자니아의 다레살람, 나이지리아의 라고스, 모로코의 카사블랑카, 우간다의 캄팔라 등과 더불어 아프리카에서 범죄율이 가장 높은 도시 중 하나로 만들고 있다¹⁰.

이와 같은 사회 환경에서 과연 나이로비에 지속가능성장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인가? 도시의 지속가능성은 경제적 지속가능성, 정치적 지속가능성, 사회적 지속가능성, 생태적 지속가능성이란 축의 상호 작용에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틀에서 본다면 급격한 도시화에서 비롯된 나이로비의 사회적 문제는 도시의 경제적 지속가능성 등 다른 축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림은 물론, 종내는 도시의 지속가능성에 장애가 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현실은 매우 역설적이다. 무허가 빈민촌에 근거하여 자라온 노점상 등 허가 받지 않은 ‘비공식 기업’을 주축으로 하는 경제의 비공식 부문은 나이로비는 물론 케냐 전체의 경제에 이미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케냐 통계국의 자료에 의하면 2000년에 이미 420만 명이었던 비공식 부문의 종사자 수는 2002년 510만 명 정도로 급증하였으며 케냐 전체 고용의 약 74%를 차지한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제 비공식 부문은 케냐 GDP의 3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일자리의 약 77%를 제공하고 있어, 일자리 창출, 빈곤 감소 등 케냐 경제 전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¹¹. 비공식 부문의 업종은 주로 자동차 정비, 노점상 등 주로 노동집약적인 소규모 업종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최근에는 중고 옷가지, 저가의 전자제품 등을 남수단을 비롯한 이웃나라에 컨테이너 단위로 수출하는 큰 규모로도 성장하고 있다¹². 현지어인 키스와힐리어로 ‘주아 칼리(Jua Kali)’로 불리는 이 비공식 부문¹³은 “오늘날 우리는 모두 주아 칼리이다”라는 자조적인 말이 전국에서 들릴 정도로 케냐의 경제 활동의 중추가 되었다¹⁴. 그렇다면 주아 칼리가 이렇듯 대규모로 확대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림3 케냐의 주별(洲別) 청년 실업률 비교



자료 : UNDP, 2013, p.60 인용

케냐의 주아 칼리 부문은 공식적인 경제 및 산업 부문이 노동 시장으로 진입하는 신규 인력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 매해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예컨대, 2010년 기준 케냐의 청년 실업자 수는 약 250만 명 정도로 추산되었지만, 공식부문은 고작 12만 5천 명 정도를 고용할 수 있었을 뿐이라는

9 Teresia, Ndikaru Wa, 2011. p.280

10 Numbeo, 2014

11 Orwa, 2007. p.1

12 이재훈, 2014

13 주아 칼리는 사전적 의미로는 '혹독한 태양'이란 뜻이나 적은 돈에 무엇이든지 고치고 무슨 일이든지 수행하는 사람이란 의미

14 Orwa, 2007

사실은 주아 칼리 부문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케냐 경제 상황의 현실을 보여 준다¹⁵.

케냐 경제 전반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주아 칼리는 매우 열악한 환경에 처하여 있다. 그들의 사업 터에 상수도 시설이 있을 리 없으며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다. HIV 등이 창궐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변한 의료기관도 없다. 또한 나이로비의 행정을 담당하는 시의회를 비롯한 시정부 당국과는 대부분 비우호적인 긴장관계에 있다. 이와 같은 긴장의 근저에는 공식 부문이 주아 칼리와 같은 비공식적인 제도권 밖의 경제 활동을 ‘그들만의 2부 리그’로 백안시하며 소외시키는 소위 ‘주류 사회’의 전통적 사고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으로는 주아 칼리가 영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터를 녹지 확보, 사회 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환경을 개선하려는 시정부의 개발 계획 또한 수궁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나이로비를 동아프리카의 금융, 제조업, 교통의 허브로 만들어 경쟁력 있는 글로벌 시티로 만들려고 하는 시정부의 계획을 비난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시정부의 허가를 취득한 재개발업자가 주아 칼리의 사업 터전에 재개발을 시행할 경우, 양측의 충돌이 불가피하여 종종 폭력 사태로 이어진다. 주아 칼리의 사업 터전 자체가 처음부터 무허가이므로 소유권이 있을 리 없다(그림4).

따라서 은행이나 제도권 금융 기관이 요구하는 담보가 없어 제도권의 용자는 거의 불가능하여 사업에 필요한 자본을 제도권에서 조달하여 사업을 확장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또한 주아 칼리의 사업터 및 건물은 구조물에 대한 공식적인 소유권을 보장 받을 길은 거의 없으며, 그들의 영업 활동 자체가 무허가이므로 종종 경찰 등 법집행자들의 협박과 갈취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법체계는 복잡하고 나이로비를 에워싸고 있는 주정부와 메트로폴리탄 시정부에 의해 많은 규제가 중복되어 있으며 세무 제도 역시 복잡하여, 주아 칼리가 관료주의를 넘어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영업 허가 취득을 통하여 제도권으로 진입한다는 것은 그리 녹록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주아 칼리는 그들의 권리와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협회를 만들어 활동 중이다. 현재 케냐 전국에 걸쳐 600여개의 주아 칼리 협회가 이미 등록 허가를 받았고 300여 개가 등록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특히 1992년 자발적으로 조직된 나이로비의 ‘카올레 주아 칼리 협회’는 회원의 교육을 통한 관리 능력 향상, 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기술 수준 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매우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⁶.

그림4 전형적인 주아 칼리의 사업장



자료 : Steven Daniels, 2010(상), Jovan Kurbalija, 2011(하)

그림5 나이로비의 무허가 빈민촌



자료 : UNDP, 2013

일반적으로 무허가 비등록 기업이란 선입견과는 달리, 주아 칼리 부문은 매우 특화되어 있고 혁신적이며 잘 발달된 소규모 기업과 소상공인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또한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하여 이를 실천하고 있는 산업 부문이라는 점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 중요한 점은 이와 같은 공격적이고 끈질긴 기업가적

¹⁵ The Nation, 2010

¹⁶ Orwa, 2007, p.2

케냐 비전 2030

케냐 비전 2030은 2030년까지 케냐의 발전 방향을 설정한 장기 국가 개발 비전으로 2008년 와이 키바키(Mwai Kibaki) 대통령에 의해 시작되었다. 케냐 비전 2030년의 궁극적인 목표는 2030년 까지 케냐를 신흥공업국 및 중진국으로 만들겠다는데 있으며 경제, 사회, 정치의 3대 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비전 2030은 5년 기간의 중기 개발 계획에 의하여 실행되고 있으며, 첫 5개년 계획은 2008~2012년, 2차 5개년 계획은 2012~2017년으로, 5년 단위의 중기개발계획이 2030년 까지 실행되도록 설정되었다. 비전 2030은 참여를 통한 국민 모두의 포괄적 성장을 강조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는 모든 국민이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높은 수준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비전 2030 전략은 구체적으로 (1)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거시경제의 안정, (2)거버넌스 개혁의 지속, (3)빈곤층을 위한 공평성 및 부의 창출 기회 강화, (4)인프라 구조, (5)에너지, (6)과학, 기술 및 혁신, (7)토지 개혁, (8)인적자원개발, (9)치안 등 여덟 개의 주요 분야의 개혁과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도전 정신과 근성은 케냐의 경제 발전과 산업 구조 전환에 꼭 필요한 속성이라는 점이다. 케냐의 경제 개발 계획인 '케냐 비전 2030(Kenya Vision 2030)'의 경제·산업 개발 계획 목표의 실현에 있어서 주아 칼리 부문을 제외하고 목표의 달성이 과연 가능할까?

케냐 비전 2030의 목표와 같이 케냐가 2030년 중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매년 10%의 성장이 필요한데 주아 칼리 부문을 제외한다면 이 목표치의 달성이 가능해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산업화와 경제 구조 전환에 있어서도 이들을 제외하고는 공업, 특히 경공업의 공급 사슬의 구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과제인 것으로 보인다. 일부는 수궁하고 싶지 않겠으나 현대 도시 나이로비에 산재한 무허가 빈민촌만큼이나 주아 칼리 부문은 존재하는 실체이다. 케냐 정부는 1986년 제1차 회기보고서를 통하여 비공식 부문의 실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이 부문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케냐 정부가 세계 여러 나라 NGO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주아 칼리의 공식화와 더불어 그들의 사업 환경에 있어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빈민촌 거주민의 생존을 위한 무허가 경제 활동은 단기적으로는 빈곤 감소와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지만, 장기적으로는 도시의 지속가능성장에 부정적인 요인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들의 기여 없이 지속가능성장이란 거의 불가능한 과제이며 이러한 사실은 나이로비의 고층 빌딩과 초라한 움막 같은 주아 칼리 사업장이 공존하는 모습에서 잘 나타나 있다. 이와 같은 내부 모순과 갈등, 긴장이 공존하며 내일의 비전을 위하여 하루하루 전진하는 것이 오늘날 나이로비의 참모습일 것이다.

3. 서울과 나이로비 간 소프트 인프라구조 구축 경험 공유의 필요성

나이로비는 오늘의 개발도상국 도시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모순과 갈등 그리고 내일의 희망이 공존하고 있다. 동아프리카의 허브로 거듭나기 위하여 도시 경쟁력과 더불어 지속가능성장의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나이로비의 개발에 대한 미래 비전은 고층 빌딩과 환형 도시 고속도로, 전력망, 통신 시스템, 상하수도 시스템 등 '하드 인프라구조(hard infrastructure)'에 있는 것만은 아닐 것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주아 칼리 문제로 대면되는 케냐 경제·사회의 구조적인 모순과 갈등을 개발 동력으로 승화시켜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에는 딜레마가 따른다. 케냐 개발 비전 2030의 목표에 설정된 공업 발전을 위해서는 주아 칼리의 네트워크와 노동력이 반드시 요구되지만 도시의 환경과 개발을 위해서는 주아 칼리와 무허가 지역의 희생 또한 불가피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 같은 구조적 모순과 갈등을 극복하고 내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도시 재개발(renewal) 정책, 이주 실행 계획(replacement action plan), 환경 개선 정책, 산업 발전을 위한 클러스터 육성 정책, 도시 소상공인 지원 정책, 투자 유치 정책, 교육 정책 등 도시의 모순 구조를 개선하고,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지속가능성장을 지원할 법적·제도적 장치인 '소프트 인프라구조'를 설계하고 실행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소프트 인프라구조에 대한 통일된 정의는 아직 없으나 고층 건물, 도시 고속도로, 지하철 시스템, 통신망, 전력망 등 '하드 인프라구조'와 대비되는 아이디어 즉 "어떻게 하면 우리의 도

시를 경쟁력 있고 지속성장이 가능한 도시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라는 비전에서 출발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정책이 수반된 전략이 필요하며, 전략에 따른 정책의 실행은 성공과 실패라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 같은 성공과 실패의 경험은 차후 소프트 인프라구조의 설계에 ‘피드백(feedback)’되어, 보다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소프트 인프라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서울은 Global Power City Index(GPCI)에서 런던, 뉴욕, 파리, 싱가포르에 이어 세계 6위의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시티로 성장했다¹⁷. 서울이 오늘날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시티의 면모를 갖추기까지 나이로비와 유사한 문제들을 극복해 왔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축적된 성공과 실패의 경험은 나이로비를 비롯한 개발도상국 도시의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소프트 인프라구조의 수립과 시행에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도시 간의 활발한 교류를 촉진하여 성공은 물론 실패 사례에서의 교훈을 공유하는 것은 개발도상국 도시의 글로벌 경쟁력 배양과 지속가능성장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개발도상국 대부분은 중앙집권화가 심화된 정체(政體)를 유지하고 있어 우리와 개발도상국 도시 간 교류의 통로가 원활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예컨대, 나이로비도 2008년부터 중앙정부 산하에 나이로비 메트로폴리탄 개발부(Ministry of Nairobi Metropolitan Development)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나이로비의 개발에 관하여 이 부처가 가장 상위 부서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 부처를 중박된 임무를 수행하는 정치적으로 무거운 짐으로 여기고 있으며, 관료들의 자리 마련을 위하여 납세자들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불필요한 정부

기관이라고 여기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례는 왜 서울의 소프트 인프라구조 발전 경험이 개발도상국 도시와 공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를 잘 설명해주는 일례라고 할 수 있어, 앞으로 우리와 개발도상국 도시 간의 활발한 정보 및 발전 경험 공유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 문헌

- 이재훈, 2014, 아프리카 비공식부문에 대한 이해와 체계적 연구의 필요성, Emerics, 2014. 12. 05, <http://www.emerics.org/>
- Adebayo, Ambrose A., 2012, A Tale of Two African Cities: Hyper Growth, Sprawl and Compact City Development: Towards the Development of a Sustainable Future City, The 48th ISOCARP Congress 2012
- Amnesty International, 2009, The Unseen Majority: Nairobi's Two Million Slum Dwellers, London
- Daniels, Steven, 2010, African Tech Makers: Selections from the New Book Making Do, 27 August 2010, The Atlantic, <http://www.theatlantic.com/technology/archive/2010/08/african-tech-makers-selections-from-the-new-book-em-making-do-em/62143/> [검색일 : 2014.12.12.]
- Institute for Urban Strategies, 2014, Global Power City Index 2014, Mori Memorial Foundation, http://www.mori-m-foundation.or.jp/gpci/index_e.html [검색일 : 2014.12.22.]
- Mitullah, Winnie, 2003, Urban Slum Report: The Case of Nairobi. Kenya. University of Nairobi
- Nation, The, 2010, Kenya: Unemployment biggest challenge. says president, 01 June 2010, Kenya
- Numbeo, 2014, Africa: Crime Index 2014 Mid Year. http://http://www.numbeo.com/crime/region_rankings.jsp?title=2014-mid®ion=002 [검색일 : 2014.12.12.]
- Orwa, Bani., 2007, Jua Kali Associations in Kenya: A Force for Development and Reform, Center for International Private Enterprise, Washington D.C.
- Teresia, Ndikaru Wa, 2011, Crime Causes abd Victimization in Nairobi City Slums, International Journal of Current Research, Vol. 3, Issue, 12, pp.275-285
- United Nations, 2006, Nairobi: Urban Sector Profile, UN-HABATAT New York.
- United Nations, 2009, Kenya: Atlas of Our Changing Environment, UNEP Nairobi
- United Nations, 2013, Discussion Paper: Kenya's Youth Unemployment Challenge, UNDP New York
- United Nations, 2014,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The 2014 Revisio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Washington D.C.
- World Bank, 2014,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www.worldbank.org/> [검색일 : 2014.12.10.]